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사회재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실천

전기옥*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연구원
e-mail:elecok0383@daum.net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Practice of Correctional Welfare for empowerment of Social Reentry capacity of Sexual Assault Criminals with Electronic Anklets)

Gi-Ok Jeon*

*Researcher of BK21+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rgration Expert Dep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독의 재범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성과와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문헌고찰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이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실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헌고찰의 결과 전자감독 시행 후 10년간 재범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338명으로 재범률은 1.49%이었으며, 이는 대상자 100명당 약 1.5명만이 전자감독 기간 내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범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차별, 취업의 어려움, 스트레스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생활 자유 침해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 현장 중 사회내 처우의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한 갱생보호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복적 사범정의 Sycamore Tree Project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자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간접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회복적 사범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 교정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모델 중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모델, 임파워먼트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안정적 사회재진입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교정현장과 보호관찰소의 문턱을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전자감독, 교정복지, 회복적 사범정의

1. 서론

성폭력 범죄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관심 정도가 높다(윤현봉, 배임호, 2019).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교정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부터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이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법무부)를 말한다.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동종재범률이 14.1%에서 1.5% 미만으로 1/9수준 까지 떨어졌다(손외철, 2014).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의 이면에는 전자발찌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윤현봉, 배임호, 2019). 제도의 부작용으로는 스트레스 증가, 높은 자살률, 경제적 안정의 어려움, 사생활의 자유 침해의 문제 등이다(조운오, 2009).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정서적 불안이 다시 끔찍한 범죄를 낳기도 한다(윤현봉, 배임호, 2019). 또한 월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차 범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커져 '범죄의 악순환'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김선욱, 2014). 이와 같이 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 범죄자의 안정된 사회재진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부정적 영향에 주

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자감독이 재범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자감독이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의 성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이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법무부)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지난 12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2.2 문헌고찰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제도의 효과성을 주로 재범억제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 2008년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살인 등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은 실시사건 10,370건 중 재범자는 231건으로 2.23%이다. 전자감독 시행 후 10년간 재범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338명으로 재범률은 1.49%이다. 이는 대상자 100명당 약 1.5명만이 전자감독 기간 내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범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과 비교해본 결과, 5개년 동안 일관되게 전자감독 대상자에 비해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더 높았고, 2016년에는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전자감독 대상자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2014).

소수의 연구에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다루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은 최고 30년, 평균 8년에 달하는 부착 기간 중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한 수치심, 일상의 제약

과 변화, 우울증, 외로움, 불안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가 유발된다고 조사되었다(김성언, 한국행정연구원, 2014).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하여 스트레스 초고위험군 비율이 56%로 3배 이상 많으며, 일상적으로 우울감과 후회, 무기력, 짜증, 죄책감을 보이며, 20.6%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이성철, 김충섭, 2013).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교도소 수용생활로 사회와 단절되어 급속히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기술은 있어도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취업이 어려워 대부분이 무직이나 안정성이 적은 일용노동자에 그치며 최저생계비용으로 열악한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박성수, 2016).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부착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것(24.9%)으로 파악되었고,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취업형태를 보면 일용직이 44.8%에 해당하고, 직업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 노무직이 31%, 생산직이 15.5%, 생산직이 16%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위축 ‘직장 내에서의 눈치보기’나 ‘해고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성언, 한국행정연구원, 2014).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여전히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중 전자발찌 부착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소 안에서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출소 후 맞닥뜨린 경제적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취업제한’으로 인해 험난한 육체노동을 하며 생존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경험한다. 넷째, 전자발찌를 감춰야 하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간다(윤현봉, 배임호, 2019).

2.2 교정복지

교정복지란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배임호 외, 2010). 교정복지 실천현장은 크게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는 미결수용자들이 수용되는 구치소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들이 수용되는 교도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내 처우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 안에서 자유로이 영위하도록 하면

서 일정 기간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하는 형사정책상의 제도를 말한다. 사회내 처우에는 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보호관찰의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 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거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을 말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3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범죄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한 대화(dialogue) 과정을 거쳐, 발생한 잘못된 행동(wrong doings)을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Zehr, 1990).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들의 복지가 복구되고 향상되는 일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해자를 지역 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를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다(배임호, 2007).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주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Sycamore Tree Project는 재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함으로써 재소자들을 재사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ycamore Tree Project는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되돌아보고 인정할 기회를 제공한다(배임호, 박일연, 2018).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독의 재범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성과와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문헌고찰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이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실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자감독은 재범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차별, 취업의 어려움, 스트레스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생활 자유 침해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 현장 중 사회내 처우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한 갱생보호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정의의 Sycamore Tree Project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간접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안정된 사회재진입 역량강화 교정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모델 중 심리사회모델, 인지행동모델, 임파워먼트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인간이해를 한마디로 '환경 속의 인간'으로 정의한다면, 심리사회모델은 '환경속의 인간'을 이론적 모델로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엄명용 외, 2012). 심리사회모델의 교정복지현장 적용에 있어 먼저 사회복지사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와의 면담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범행 동기와 원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어린시절의 경험, 원가족에 대한 이해, 생활환경에 대해서 생태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개인 대 환경간의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여(남찬섭 역, 2012)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하태선, 2015). 둘째, 인지행동모델의 교정복지현장의 적용에 있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인지 패턴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가 사회규범에 대해서도 부정적 사고를 교정하고, 출소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왜곡된 사고 패턴을 점검해야 한다(하태선, 2015). 셋째,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두며, 과거의 문제들을 치료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가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명료화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남찬섭 역, 2012). 사회복지사와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협력적 파트너라는 공유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스스로 사회복지의 주체가 됨으로써 범죄로 인해 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태선, 2015).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안정된 사회재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정사회복지사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정현장이나 보호관찰소는 공공영역으로서 다른 사회복지 현장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하태선, 2015) 있어, 사회복지사가 접근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 사회재진입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교정현장과 보호관찰소의 문턱을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선옥,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과 형사법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94. 12월, 2014년.
- [2] 김성연, 한국행정연구원, “전자감독제도의 영향 및 효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 455-574, 2월, 2014년.
- [3] 김지선,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 213-247, 2월, 2014년.
- [4] 박성수,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가해제 활용방안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13권 1호, pp. 73-94, 5월, 2016년.
- [5] 배임호, “회복적 사법정의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교정연구, 제37호, pp. 137-169, 12월, 2007년.
- [6] 배임호, 박경일, 이태언, 신석환, 전영록, “교정복지론”, 경기: 양서원.
- [7] 배임호, 박일연,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연구: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 28권 1호, pp. 3-25, 3월, 2018년.
- [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9] 손의철, “한국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 10권 2호, pp. 167-193, 2014년.
- [10] 엄명용, 김성천, 오혜경, 윤혜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11] 윤현봉, 배임호,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 19권 2호, pp. 147-200, 12월, 2019년.
- [12] 이성철, 김충섭,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 13권 1호, pp. 227-282, 6월, 2013년.
- [13] 조운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2009년
- [14] 하태선, “교정현장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4호, pp. 7-21, 7월, 2015년.
- [15] Healy, K.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남찬섭 역, 서울: 나눔의 집.
- [16] Zehr H. “Changing Lenses”, Scottale, Pennsylvania: Herland Press.